

■ 발간사 ■

아름다운 우리 모습



이 옥 란

광주전남북지부 부회장

추석명절에 그리운 사람, 멀리 있어 가슴으로만 가까웠던 고향친구, 그리고 친척과 가족들 모두 만나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반달 모양 송편 드시고 보름달 같은 에너지를 산업간호 업무에 모든 역량을 다 펼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넓게 펼쳐진 가을 들녘….

태풍에 쓰러진 황금빛 벼 이삭이 누운 그곳 그 자리에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 듯 겸허하게 아픔을 이기며 더욱 알차게 익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는 듯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현장에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그리고 애정과 관심으로 한국산업간호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진 선생님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해를 거듭 할수록 역할이 증대되고 많은 난관을 타개하는 협회의 발전을 봅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많아지는 반면 우리 선생님들의 계약조건, 근무조건, 지위 확립 등 불안전한 제도 속에서 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나 우리 선생님들 훗날에 꽃피울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다는 사명으로 산업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업간호사로서 필요한 모든 역량 강화를 위해 물질도 투자하시고 시간도 투자하여 우리 스스로 더욱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라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의 노력에 의해 산업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해가 거듭 할수록 한층 더 빛 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회원 여러분과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30일

광주전남복지부 부회장 이옥란 올림